

‘반값여행 원조’ 강진군 “청년 관광객 최대 70% 환급”

10일부터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 6-8월 여름 휴가철 맞아 특별지원 문체부 등 연계 1인당 최대 14만원 소상공인 매출 증대 ‘상생 경제’ 도모

강진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지자체가 앞다퉀 벤치마킹하는 ‘반값여행 원조 1번지’의 명성을 잇는 역대급 관광객 지원책을 가동한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2026 강진 반값여행(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을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6월부터 8월까지 두달간 여름 휴가철에 집중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강진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의 일부를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Chak)’으로 돌려주는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새롭게 도입된 ‘청년 관광객 특별지원’이다.

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1992년 4월1일~2007년 4월1일 출생자)이 홀로 강진을 여행할 경우, 총 3만원 이상 소비 시 사용 금액의 최대 70%(최대 14만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 관광객 역시 기존 반값여행과 동일하게 사용 금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 개인은 최대 10만원, 2인 이상 팀 단위는 최대 20만원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강진군 관내 지정 관광지 2곳 이상을 방문해야 하며, 1인당 사업 기간 내 1회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기존 ‘2026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 혜택을 누렸던 관광객도 이번 정부 연계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신청 대표자가 구매할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관내 가맹점에서 결제한 내역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며, 일반 카드 및 현금 영수증은 제외된다.

다만 문체부와 관광공사의 지침에 따라 강진군과 인접한 4개 지자체(완도·해남·영암·장흥)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 더 많은 관광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원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인근 4개 군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이 선도적으로 시작한 반값여행 정책이 국가사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관광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져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웃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함평군, 스마트·정밀 농업기술 보급 ‘박차’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사업 추진 스마트 관수시스템·방사팬·무인 방제 등

함평군이 기후변화와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데이터를 활용한 노지 스마트농업 확산에 팔을 걷어붙였다.

2일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역 농가의 생산성 및 농산물 품질 향상을 돕기 위한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사업’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농산물의 생육 단계별 데이터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재배 환경을 조성해 노동력을 절감하는 첨단 농업 프로젝트다. 주로 노지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스마트 관수 시스템, 방사팬, 무인 방제 시스템 등 최신 스마트농업 기기가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도입된 시스템을 통해 농가는 토양의 수분과 기상 환경, 작물 생육 상태를 스마트폰 등으로 실시간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작물 상태와 토양 환경에 맞춰 적정량의



물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스마트 관수 기술’은 물 사용량을 대폭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여기에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해충 방제 작업

역시 ‘무인 방제 시스템’으로 대체해 농작업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방사팬을 통해 저온 피해까지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문정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후변화와 노동 인구 감소라는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농업 확산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정밀 농업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평군은 이번 사업 외에도 올해 로봇 스마트팜 기술 시범 사업, 시설 원예작물 스마트팜 건설 등 다채로운 시범 사업을 병행하며 미래 첨단 농업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함평=김영규 기자

완도군, 5천억 투입 유인도 정주여건 개선

郡, ‘제5차 섬 종합 발전 계획’ 수립 2028-2037년 10개년 중장기 사업

완도군이 지역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제5차 섬 종합 발전 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2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2028년부터 2037년까지 추진되는 10개년 중장기 로드맵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027년 2월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완도군은 285개의 섬(유인도 54개)으로 이뤄진 대표적인 섬 지자체로, 최근 고령화와 인구 감소 탓에 행안부로부터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종합 발전 사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앞서 군은 1988년 1차 사업부터 현재 4차 사업에 이르기까지 총 5천336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방파제와 선착장, 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며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이번 5차 계획에는 기존(연륙되지 않은 주민 10인 이상) 미달로 기존 개발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금면 넓도와 초완도, 신지면 모항도 등을 새롭게 포함시켰으며, 이를 통해 54개 유인도 전체의 고른 균형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만큼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획기적인 정주 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섬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나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농기계안전교육장에서 농작업 재해 없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을 전개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 추진

농촌진흥청 주관...안전 문화 실천

나주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가장 안전한 농촌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농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선제적

으로 예방하고 농업인들의 자율적인 안전 실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은 현장 중심의 농업인 안전교육과 연계 진행됐으며, ▲농기계 교통사고 ▲기계 전도·전복·끼임 사고 예방 ▲높은 곳에서의 추락·낙상 방지 ▲야외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등 영농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별 맞춤형 안전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농업인들은 “안전한 농촌일터 만들기, 우리 함께 실천해요”라는 슬로건 아래 자발적인 안전 문화 확산에 뜻을 모아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함남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 현장에서는 잘나가는 작은 부주의가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 중심의 안전 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안전교육과 재해 예방 홍보를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무안 식영정 코스모스 만개...힐링 명소 ‘각광’

무안군 몽탄면에 자리한 전남도 문화재자료 ‘식영정(息養亭)’ 일대가 싱그러움 초록빛 녹음과 때 이른 분홍빛 코스모스로 물들며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휴식을 선사하고 있다.

2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식영정 주변 영산강변 산책로에는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피어난 6월 코스모스가 만개해 색다른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강변을 따라 아름답게 조성된 나무 데크 길은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 최고의 힐링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산책로 곁으로 손을 뻗으면 닿을 듯 피어난 코스모스 무리는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마음의 여유를 동시에 선물한다. <사진>

‘경영을 쉰다’는 뜻을 품은 식영정은 세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잠시 쉬어가며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다. 탁 트인 영산강 풍경과 계절 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가족과 친구, 연인들의 나들이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이곳을 찾은 한 방문객은 “탁 트인 강 풍경과 푸른 녹음, 예쁜 코스모스가 어우러진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식영정 일대에서는 매년 10월 대대적인 코스모스 축제가 개최된다. 다가오는 가을에는 한층 더 화려하게 피어난 코스모스 물결과 다채로운 볼거리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무안=김성호 기자

서해해경청,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강화’

어업 질서 확립...상반기 14척 나포 담보금 최대 15억 ↑ 재범 의지 차단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2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결과, 총 14척(무허가 6척·제한조건 위반 8척)을 나포하고 100척을 퇴거·차단 조치했다.

이는 같은 기간 해경청 전체 나포 실적(21척)의 67%에 달하는 수치다.

더불어 기상 악화로 우리 해역에 긴급 피난한 중국어선 76척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했다.

서해해경청은 올해 초와 봄 성어기에 대형 함정과 항공기, 드론을 총동원한 세 차례의 입체적인 특별 단속을 전개해, 지난 1월 신안군 가거도 인근에서 무허가 어선 4척, 4월 무허가 어선 2척을 잇달아 나포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달 12일 ‘경제수역어업추진법’이 개정·시행돼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부과되는 담보금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상향됐다.

서해해경청은 불법조업 기대 수익보다 훨씬 큰 경제적 징벌을 가해 악의적인 재범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백학선 서해해경청장은 “교묘하게 진화하는 불법조업은 우리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강화된 법률과 첨단 감시 체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해양수권을 완벽히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진도군-선진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본격화

진도군은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선진농협과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에 농림축산식품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공모에 선정된 군은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최근에 라오스 국적의 계절근로자 30명의 입국을 지원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단기로 인력이 필요하거나 상시 근로자의 고용이 어려운 영세

농가도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농번기 등 농촌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오스 국적의 계절근로자들은 농작업과 안전교육 등 사전교육을 거친 뒤 관내 농작업 현장에 투입되며, 약 5개월간 체류할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선진농협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가의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원 기자